

제 1 전시실: 다타라 제철이란?

제 1 전시실에서는 다타라 제철의 개요를 소개합니다. 철이 완성되기까지 일련의 공정과 기술, 지역 제철소에서 사용했던 도구, 제철소에서 생산된 철과 강철 샘플, 19세기 후반에 사용했던 용광로의 실물 크기 모형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다타라 제철은 일본의 독자적인 제조법이자 원료로 철광석과 석탄(또는 다른 재생 불가능한 연료원)이 아닌 사철과 목탄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현대의 여타 제철법과는 다릅니다. 도구와 설비는 달라졌지만, 다타라 제법의 기본 원리는 6세기 후반부터 변함이 없습니다.

제철업은 이 지역을 포함한 주고쿠 지방(히로시마현, 오카야마현, 시마네현, 돗토리현, 야마구치현)의 산간 지역에서 번성했습니다. 양질의 사철을 풍부하게 채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점차 더욱 효율적인 제철 기술이 개발되면서, 일시적으로 시행하던 소규모 제철에서 마을 전체로 운영하는 대규모의 항구적인 제철로 변해갔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1800년대 후반에 들어 일본 국내 최대 규모의 철강 생산지로 자리 잡으며 현대 철강업의 기초를 닦았습니다.